

#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 경제에 끼친 영향

-신문기사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다니무라 코노미

## 목차

|                            |    |
|----------------------------|----|
| 1. 서론.....                 | 2  |
|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 2  |
| 1-2.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란..... | 2  |
| 2. 본론.....                 | 3  |
| 2-1. 한일 무역 분쟁의 배경.....     | 3  |
| 2-2. 한일 무역 분쟁의 쟁점.....     | 6  |
| 2-2-1. 반도체 수출관리.....       | 6  |
| 2-2-2. 화이트리스트 제외문제.....    | 7  |
| 2-3. 경제적인 영향.....          | 9  |
| 2-3-1. 반도체 산업의 영향.....     | 9  |
| 2-3-2. 기타 국가 경제 영향.....    | 12 |
| 3. 결론.....                 | 15 |

주제어: 한일무역분쟁, 한일관계, 화이트리스트, 반도체시장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나타난 무역 분쟁의 역사와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 경제적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양국관계의 구축과 경제적 상호관계를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일관계는 옛날부터 한국 일본 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사회적인 일이고, 많은 학자들이 이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일관계가 호전, 악화되는 결과뿐이다. 이 한일 관계를 판단하는 관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대외무역 및 경제적 관점에서 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해본다.

## 1-2.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란

한일간의 무역분쟁은 옛날부터 계속 지속되어오던 문제이지만 이번 논문에서 거론하는 것은 2019년에 일어난 무역분쟁이 핵심 쟁점이다. 2019년에 일어난 무역 분쟁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향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며, 한국이 그것에 대해 WTO에 고소하면서 일어난 무역에 관한 양자간 대립문제이다. 이 분쟁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22년에 한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무역 조약인 화이트리스트로의 복귀를 결정함으로써 표면적으로 무역 분쟁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의 정권이나 국제정세에 따라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문제이다.

## 2. 본론

### 2-1. 한일 무역 분쟁의 배경

양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번에 연구할 2019년 무역분쟁 이전부터, 2010년대 후반에도 전쟁 전 일본이 조선반도를 통치했던 역사문제를 놓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18년 후반 이후,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과 문재인 한국 정권 사이에 역사인식, 방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다.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sup>1</sup>에 따른 위안부재단의 한국 해산(2018년 11월), 문희상 당시 한국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요구(2019년 2월) 등으로 이미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런 역사적 불행에도 한일 양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상호 경제구조 등으로 높은 무역의존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2019년 한일무역분쟁이 시작된 계기는 위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역사적 대립 등으로 한일 양국 간 외교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이 한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재의 수출 제한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제조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되었다. 이 조치로 관련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을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의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sup>2</sup> (장지상, 2019)

2019년 7월 4일,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발동했다. 일본 측은 공식적으로 안보상 이유를 제시했지만, 한국 언론 측에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반도체 공

---

<sup>1</sup> 「日韓兩外相共同記者発表」 『外務省』 2015.12.28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4\\_001664.html](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4_001664.html)> (접속일:2023.09.22)

<sup>2</sup> 장지상(2019)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의 대응」 『통상법률 144호』 pp.3-8

장에 쓰이는 불화수소는 일본 의존도가 50% 이하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한국 무역규제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바로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진입과 점유율 확대에 대한 동등 시장에서의 일본의 위상 약화이다. 한국 기업이 대량으로 수입한 에칭가스가 북한에 수출되어, 안보상 위협으로 무역규제를 하겠다는 일본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설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불화수소는 독가스 생산, 우라늄 농축에도 쓰이지만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생산에 쓰인다. 국내 불화수소 기업들은 일본에서 일반 불화수소를 수입해 고순도 불화수소로 정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직접 일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입하는 양이 훨씬 많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큰 손해를 봤다.

[표1] 한일수출규제의 주요 추이

|               | 내용  |
|---------------|---|
| 2019년<br>7월1일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에 대해 포괄적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을 사실상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임을 예고함. |
| 7월4일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
| 7월9일          |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참석한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의 7월 4일 조치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한다. <sup>3</sup>                     |
| 7월17일         | 동아시아정상회의 고위실무자회의에서 윤상홍 한국 통상협력국장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 7월26일         |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회의에 참석한 한국 측 담당자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
| 8월1일          | 고노다로(河野太郎) 일본 외상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   |

<sup>3</sup> 「韓国政府 E A S 関連会議で日本輸出規制の不当性を説明」『聯合ニュース』2019.7.17 <<https://jp.yna.co.kr/view/AJP20190717004100882>> (접속일:2023.09.24)

|               |  |
|---------------|--|
|               | 서 만나 한국은 GSOMIA에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했다.   |
| 8월2일          |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각의 결정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이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새로 그룹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룹 B에 배정됐다.                                      |
| 8월12일         | 한국 정부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함.  |
| 8월27일         | 무기무역협정 당사국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 수석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sup>4</sup>  |
| 9월11일         | 일본의 반도체 원료 3개 품목 수출 엄격화를 부당하다며 한국이 일본에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약 요청(WTO 제소) <sup>5</sup>   |
| 9월18일         |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은 정식으로 제외   |
| 9월30일         |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에서 수입된 벨브에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WTO 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상급위원회 판단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덤핑방지 과세조치가 WTP 협정에 부정합적이라며 조치의 시정을 권고하는 판단이 확정되었다. <sup>6</sup> |
| 10월11일        | 일본의 반도체 원료 3개 품목 수출 엄격화에 대해 WTO협정에 따른 한일간 협의를 실시.  |
| 11월22일        | 한국이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 및 ‘한일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sup>7</sup>   |
| 12월20일        | 일본이 수출 규제 일부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20년<br>1월8일 | 일본측 모리타화학공업에 불화수소 한국기업 수출 허용.  |
| 3월10일         | 한일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 화상회의 개최.   |
| 6월18일         | 한국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함. <sup>8</sup>  |

<sup>4</sup> 「韓国政府、武器貿易条約会議で日本の貿易制限措置の撤回要求」『中央日報』2019.08.28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57046>> (접속일: 2023.09.25)

<sup>5</sup> 「韓国が日本を提訴、輸出管理の厳格化で、WTO発表」『日本経済新聞』2019.9.16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9861600W9A910C1PE8000/>> (접속일: 2023.09.25)

<sup>6</sup> 「韓国による日本製空圧伝送用バルブに対するダンピング防止措置 上級委員会報告書及びパネル報告書の採択」『外務省』<[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7871.html](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7871.html)> (접속일: 2023.09.25)

<sup>7</sup> 「[速報] 韓国大統領府「GSOMIA終了通告」効力停止=WTO提訴手続き中止」『聯合ニュース』2019.11.22 <<https://jp.yna.co.kr/view/AJP20191122004100882>> (접속일: 2023.09.25)

<sup>8</sup> WTO (2020) ‘JAPAN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PRODUCTS AND TECHNOLOGY T O KOREA’ “DS590” pp1-5

## 2-2. 한일 무역 분쟁의 쟁점

### 2-2-1. 반도체 수출관리

반도체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2010년대의 한국의 제조업에 있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소재, 부품을 한국이 완제품으로 조립해 세계에 수출하는, 한일간의 분업 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다. 이에 2018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240억달러로 국가별로는 최대였으며, 2019년 1~6월 대일 적가 증 전자부품이 20억달러를 넘었다.<sup>9</sup>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되는 군사 전용 가능한 일부 반도체 관련 물품에 대해 기업별로 일정 기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에서 계약별로 개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sup>10</sup> 품목은 반도체 기관에 바르는 감광제 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디스플레이 패널 소재가 되는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이 지정되었다. 통상적으로 개별 수출허가 절차에는 90일 정도 소요되며, 이는 반도체 제품 수출이 경제를 지탱하는 한국으로선 일본으로부터의 원활한 자재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상기 3개 품목은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커서, 한국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에 대해 어디까지나 일본 내 제도 운용의 문제일 뿐이고 한국과 협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세코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대신은 또 이 조치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며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수출관리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고 일정 부분 인과관계는 있음을 인정했다.<sup>11</sup> 그는 8월 8일 규제 이후 처음으로 3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심사를 통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며 수출허가를 내주면서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sup>9</sup> 「韓国、100品目で脱日本依存目標に 支援に6800億円」『日本経済新聞』2019.08.05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8208360V00C19A8FF8000/>〉 (접속일:2023.09.25)

<sup>10</sup> 「韓国への輸出、半導体材料の一部許可 規制強化から初」『朝日新聞』2019.08.08 〈<https://www.asahi.com/articles/ASM88319JM88ULFA003.html>〉 (접속일:2023.09.25)

<sup>11</sup> 「世耕経産相「韓国、友好関係否定の動き」 輸出規制巡り」『朝日新聞』2019.07.04

〈<https://www.asahi.com/articles/ASM745GR3M74ULFA01W.html>〉 (접속일:2023.09.26)

한국에 있어서 7월 1일 일본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G20 오사카 정상회의 직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급물살을 탔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를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일본이 걸어온 경제전쟁으로 보고 일본에 협의와 철회를 요구했다. 7월3일에 한국 정부는 반도체 재료와 장치의 국산화 지원에 매년 1조원의 예산을 증당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 7월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본의 조치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외교적 속셈에 따른 것으로 WTO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고 세계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9월 11일자로 정식 WTO에 일본을 배소했다.

#### 2-2-2. 화이트리스트 제외문제

2019년 8월 2일에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상 보완적 수출규제의 우대 조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이후 ‘그룹A’로 개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각의 결정하고 정령 개정을 거쳐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리스트 국가였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는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되돌려지게 되었고, 대상 품목이 된 경우 심사에 최장 2~3개월이 소요되게 되었다.

일본측의 주장으로는 화이트리스트에서의 제외는 어디까지나 “절차의 재검토”이지 “수출규제”가 아니며, 안전보장상의 견지에서 일본 국내에서의 제도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때 일본에서는 한국이 북한에게 무허가로 물자 지원을 하거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을 빼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본에서는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요구한 수출관리에 관한 협의를 한국은 3년에 걸쳐 거부하고 있었다. 8월2일 수가(菅)관방장관은 이번 조치가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외무성 간부도 “통상적인 절차로 되돌릴 뿐인데 한국은 금수처럼 떠돌고 있다”고 주장

했다.<sup>12</sup>

한국에서는 8월 2일 오전 일본의 발표에 따라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TV 생방송으로 “지극히 무모한 결정이다”,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가겠다”라고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을 한국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고 WTO에 일본을 제소할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sup>13</sup> 8월5일에 한국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100개 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주요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7년간 7조8000억원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일본이 수출 관리를 엄격화 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한 주요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공급을 안정화 시켜, ‘탈일본의존(脱日本依存)’도모하기로 했다.<sup>14</sup> 9월18일에는 한국 측도 “국제적인 수출 관리 체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여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와는 협조가 어렵다”라고 하며, 수출 절차를 간략화 할 수 있는 우대국의 리스트에서 일본을 정식으로 제외하고, 대일 수출은 원칙적으로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되었다.<sup>15</sup>

---

<sup>12</sup> 「日本政府「戦略的放置」貫き韓国をホワイト国から粛々と除外」『産経新聞』2019.08.02 <<https://www.sankei.com/article/20190802-IL7YEPAACZM6BIXN6T7OBUX6KQ/>> (접속일: 2023.09.28)

<sup>13</sup> 「韓国株・為替ともに急落 日韓経済戦争の「戦犯」文在寅に保守から「やめろ」コール」『デイリー新聞』2019.08.05 <<https://www.dailyshincho.jp/article/2019/08051703/>> (접속일:2023.09.28)

<sup>14</sup> 「韓国、100品目で脱日本依存目標に 支援に6800億円-優遇除外受け対策 半導体材料など年内にも」『日本経済新聞』2019.08.05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8208360V00C19A8FF8000/>> (접속일:2023.09.28)

<sup>15</sup> 「韓国、輸出優遇国から日本を除外 報復措置か」『朝日新聞』2019.09.18 <[https://www.asahi.com/articles/AS\\_M9K56J6M9KUHBI02W.html](https://www.asahi.com/articles/AS_M9K56J6M9KUHBI02W.html)> (접속일: 2023.09.28)



## 2-3. 경제적인 영향

### 2-3-1. 반도체 산업의 영향

2019년 한일무역분쟁에서 큰 피해를 당한 산업은 바로 반도체 산업이다. 일본에서는 2019년 8월 무역 통계상,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량이 제로로 기록되었다.<sup>16</sup>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는 1톤 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포토레지스트 수출액도 8월에서 9월까지 격감해 무역규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sup>17</sup>

아래 [표2]는 일본 세관에서 정해져 있는 수출 통계 품목표의 제29류 유기화학품의 품목코드를 정리한 표이다. 반도체 산업의 필수적인 불화수소의 코드는 아래 표를 보면 [2903.29-000], [2903.39-019]인 것으로 알 수 있다.

[표2] Japan Customs 수출통계품목표

|         |     |  |
|---------|-----|--|
| 2903.29 | 000 | テトラクロロエチレン(ペルクロロエチレン)                    |
| 2903.29 | 000 | その他のもの                                   |
|         |     | 非環式炭化水素の <b>ふっ素</b> 化誘導体、臭素化誘導体及びよう素化誘導体 |
| 2903.31 | 000 | 二臭化エチレン(ISO)(1,2-ジブロモエタン)                |
| 2903.39 |     | その他のもの                                   |
|         |     | - 臭素化誘導体                                 |
|         | 011 | -- 臭化メチル                                 |
|         | 019 | -- その他のもの                                |
|         |     | - <b>ふっ素</b> 化誘導体                        |
|         | 021 | -- ペルフルオロメタン                             |
|         | 022 | -- ペルフルオロエタン                             |

출처: 日本税関 (<https://www.customs.go.jp/>)

다음의 [표3]은 2019년 8월 일본 재무부 무역 통계 품별 국가별 표의 유기 화학 품목의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는 실제로 수출된 품목만 기재되어 있고, 수출이 아예 없던 품목은 기재되지 않는다. 아래 [표3]를 보면 불화수소인 [2903.29-

<sup>16</sup> 「韓国向けフッ化水素、輸出ゼロ 8月貿易統計」『日本経済新聞』2019.09.27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0278570X20C19A9EAF000/>> (접속일: 2023.10.24)

<sup>17</sup> 「韓国向けフッ化水素輸出、1年で3283t→100kg 9月」『日本経済新聞』2019.10.30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1571220Q9A031C1EAF000/>> (접속일: 2023.10.24)

000], [2903.39-019]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19년 8월에는 불화수소가 수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명확히 보이는 무역규제는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큰 사례를 하나 들어, 불화수소 전업체인 모리타화학은 한국 대상 수출 관리 강화로 2019년 순이익이 90% 감소했다.<sup>18</sup>

[표3] 재무부 무역통계품별 국가별 표 발취

| 제목          | 품별 국가별표  |       |      |         |         |
|-------------|----------|-------|------|---------|---------|
| 수출입         | 輸出       |       |      |         |         |
| 년월          | 2019년 전기 |       |      |         |         |
| 품목          | 품목 참조 지정 | 29-2z |      |         |         |
| 국가          | 국가 참조 지정 | 103   | 대한민국 |         |         |
| 단위:(1000엔)  |          |       |      |         |         |
| 품목          | 국가코드     | 국가명   | 단위   | 누계 제2수량 | 누계 금액   |
| 2903.11-000 | 103      | 大韓民國  | KG   | 12000   | 22716   |
| 2903.12-000 | 103      | 大韓民國  | KG   | 690     | 1352    |
| 2903.13-000 | 103      | 大韓民國  | KG   | 6450    | 3248    |
| 2903.19-900 | 103      | 大韓民國  | KG   | 900     | 918     |
| 2903.21-000 | 103      | 大韓民國  | MT   | 30029   | 2141562 |
| 2903.22-000 | 103      | 大韓民國  | KG   | 2490816 | 227558  |
| 2903.23-000 | 103      | 大韓民國  | KG   | 178200  | 17649   |
| 2903.39-210 | 103      | 大韓民國  | KG   | 800608  | 1617498 |
| 2903.39-220 | 103      | 大韓民國  | KG   | 77569   | 210817  |
| 2903.39-230 | 103      | 大韓民國  | KG   | 57795   | 1131981 |
| 2903.39-240 | 103      | 大韓民國  | KG   | 5880    | 49892   |
| 2903.39-250 | 103      | 大韓民國  | KG   | 131670  | 57754   |
| 2903.39-290 | 103      | 大韓民國  | KG   | 438971  | 5938726 |
| 2903.39-310 | 103      | 大韓民國  | KG   | 15750   | 68676   |
| 2903.39-340 | 103      | 大韓民國  | KG   | 442     | 655     |
| 2903.39-900 | 103      | 大韓民國  | KG   | 994     | 6305    |
| 2903.78-000 | 103      | 大韓民國  | KG   | 298000  | 419416  |
| 2903.89-100 | 103      | 大韓民國  | KG   | 295260  | 1481830 |
| 2903.89-900 | 103      | 大韓民國  | KG   | 6040    | 293664  |
| 2903.91-000 | 103      | 大韓民國  | KG   | 658716  | 68587   |
| 2903.99-000 | 103      | 大韓民國  | KG   | 24934   | 92649   |

출처: 日本税関 (<https://www.customs.go.jp/>)

다음으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본 수출규제가 강화된 불화수소와 레

<sup>18</sup> 「対韓輸出規制でフッ化水素の輸出ができない森田化学が苦境、純利益が9割減」『マイナビニュース』2020.10.05  
 <<https://news.mynavi.jp/techplus/article/20201005-1374779/>> (접속일: 2023.09.28)

지스트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정부와 함께 국산화를 진행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9월 까지 중국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한 불화수소를 일부 라인에 시범 투입하시 시작한 등 국내 기업들은 일본산 불화수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를 했다. 또한 관리 강화로 일화화학, 다이킨, 쇼와전공(昭和電工) 등 한국 반도체용 재료의 현지 생산을 늘리는 일본 기업이 늘었다.

또한 한국은 2018년까지 일본 수출 규제의 해당이 된 3품목, 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의 일본 의존도가 높았다. 아래의 [표4]는 일본 수출 규제전의 반도체 3품목의 대일 수입 점유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4] 수출 규제전의 반도체 3품목의 대일 수입 점유율(2018년)

|       |       | 불화 폴리이미드 |      | 레지스트 |      | 불화수소  |          |
|-------|-------|----------|------|------|------|-------|----------|
| 수입 순위 |       |          |      |      |      |       | 단위(100%) |
| 1 위   | 일본    |          | 84.5 | 일본   | 93.2 | 중국    | 52       |
| 2 위   | 대만    |          | 7.4  | 미국   | 5.8  | 일본    | 41.9     |
| 3 위   | 말레이시아 |          | 4.8  | 벨기에  | 0.8  | 대만    | 5.7      |
| 4 위   | 중국    |          | 2.8  | 중국   | 0.2  | 미국    | 0.3      |
| 5 위   | 베트남   |          | 0.6  | 네덜란드 | 0.02 | 말레이시아 | 0.04     |

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위의 표를 보면 불화 폴리이미드과 레지스트는 일본 점유율이 80%를 넘어,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불화수소는 중국에 이어 2위지만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 역시 높은 추이다. 이것으로부터 한국의 대일 수입 점유율이 아주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2019년 8월에는 불화수소의 일본 수출이 0로 떨어지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수출규제로 인한 반도체 재료의 수출 감소는 반도체 시장을 악화시켜, 그 악화는 한국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

전자의 2019년 연결 결산은 매출액 230조4000억원(전년 대비 5.5% 감소), 영업이익 27조7700억원(전년 대비 52.8% 감소)을 기록해, 전년 대비 반등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대기업 SK하이닉스도 역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던 2018년에서 반전하여, 2019년 통산 결제에서 큰 폭의 수익 감소를 기록했다.

상기 대기업 2개사는 반도체 재료를 일부 제3국으로부터의 조달이나 국산 재료의 투입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을 취해서 생산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연간 이익을 보았을 때 큰 타격을 입었다.

## 2-3-2. 기타 국가 경제 영향

먼저 일본 쪽의 영향을 살펴본다.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었다. 그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2019년 9월 10월 한국 수출 금액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5.19%, 23.1% 감소되었다.<sup>19</sup> 2019년 8월 이후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맥주와 청주 수출이 감소하여 10월에는 맥주 수출액이 제로가 되었다. 불매운동이 한 원인이 되어 유니클로 등을 전개하는 퍼스트 리테일링의 2019년 9-11월기 결산에서 해외 유니클로 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378억엔으로 부진했다. 무인양품을 전개하는 양품계획의 2019년 3-11월기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에서는 14.5% 감소했다.<sup>20</sup> 자동차에서도 도요타자동차에서 2020년 1월 한국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9.9% 감소하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 퍼스트 리테일링의 한 부문인 GU와 닛산자동차가 한국시장 철수를 2020년 7월까지 결정했다.<sup>21</sup>

관광산업에서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의 취소가 잇따르면서 쓰시마와 톳토리 등 한국인 관광객을 다수 수용해 온 지역에서는 영향을 미쳤다. 2019년 방일 관광객은

<sup>19</sup> 「韓国向け輸出2割減、日本製品の不買影響か 貿易統計」『朝日新聞』2019.11.20 <<https://www.asahi.com/articles/ASMCN2RGXMCNULFA003.html>> (접속일: 2023.10.26)

<sup>20</sup> 「勝ち組の「ユニクロと無印良品」が露呈した弱点」『東洋経済新聞』2020.01.25 <<https://web.archive.org/web/20200412131825/https://toyokeizai.net/articles/-/326598?page=2>> (접속일: 2023.10.26)

<sup>21</sup> 「不買運動で圧迫され経営難にあえぎ…日産「韓国から撤退」」『中央日報』2020.05.29 <<https://jp.yna.co.kr/view/PYH20200529141800882>> (접속일: 2023.10.26)

전년보다 2.2% 증가했지만, 한국 관광객에 한해서는 약 177만명 감소한 5,584,597명으로 떨어졌다.<sup>22</sup> 또한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약 70%가 일본여행을 취소하거나 행선지를 변경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한국 쪽에 영향을 살펴본다.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여행 취소로 항공업계에 서는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한일 노선 감편, 운항 중단이 잇따랐다, 특히 일본 노선 비중이 높은 LCC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중단분을 중국 방면으로 대체하였으나 2020년 1월부터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여파로 LCC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현저히 악화된 등 추가 타격을 입었다.

**[표5] GDP 실질연도(전년도 대비)**

| 시기        | 일본   | 한국   |
|-----------|------|------|
| 2017/4-3. | 1.8  | 3.2  |
| 2018/4-3. | 0.2  | 2.9  |
| 2019/4-3. | -0.8 | 2.2  |
| 2020/4-3. | -4.1 | -0.7 |
| 2021/4-3. | 2.7  | 4.1  |
| 2022/4-3. | 1.4  | 2.6  |

출처: 국정모니터링시스템,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또한 양국의 끼칠 영향으로 양국의 GDP 성장률 감소가 우려되었다. 위의 [표5]는 양국 GDP성장률을 정리하여 제작한 것이다. 표에 따르면 일본이 미미한 감소가 보였지만, 양국 다 큰 영향은 보이지 않았다.<sup>23</sup> 반도체나 관광산업 등 수출규제로 인한 국가관계 악화로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던 분야도 있지만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를 봤을

<sup>22</sup> 「データでわかる訪日韓国人観光客」『訪日ラボ』〈<https://honichi.com/visitors/asia/korea/data/>〉 (접속일: 2023.10.26)

<sup>23</sup> 「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시스템』〈[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접속일: 2023.10.26), 「年次GDP成長率」『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https://www.esri.cao.go.jp/jp/sna/menu.html>〉 (접속일: 2023.10.26)

때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결론

본 연구에서 다룬 2019년 한일무역분쟁은 반도체나 관광 산업 등에서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국제관계를 악화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다만, 최근 2023년에 이 분쟁은 종결되었다. 그 배경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고 2023년 3월에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실시되면서 일본은 반도체 관련 3품목의 한국 수출 조치 운용을 특별일 반포관허가로 재검토하였다. 동시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관리조치에 관한 WTO 분쟁해결절차 신청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2023년 7월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그룹A)에 부활시킨 것이다. 일본 또한 2021년에 일본 총리대신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 되고, 2022년에 한국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면서 한일 정치지도자가 각각 바뀌고 정치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도 들 수 있다.

이 무역에 관한 한일관계의 개선은 숫자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고, 한일간 무역수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 간 무역은 반드시 양국의 경제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호 의존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무역분쟁의 사례로 알 수 있듯,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무역에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 양국 모두에서 치명타가 된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폭넓은 상호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향후 양국의 경제적 정책을 판단할 때 보다 이성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영수 (2020) '한일간 무역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국제정치적 함의 :15) 한일 과거사, 일본의 무역규제, 그리고 '미국 없는 시대'의 한국의 선택',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1호" pp.91-120
- 김경훈, 도원빈 (2023)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한국무역현의 연구보고서"
- 김완중(2019)'한·일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영향 분석', "아시아연구 22(3)" pp.1-46
- 장지상(2019)'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의 대응', "통상법률 144호" pp.3-8
- 李智雄 (2021) 「韓国經濟の現状と日韓經濟依存度」『一般社団法人平和政策研究所 政策オピニオン』
- 李兌賢 (2021) 「2019年對韓輸出規制後の日韓貿易動向分析」『商經學叢 第68卷第1号』 pp.175-194
- 奥田聡、渡邊 雄一(2020) 「2019年の韓国 日韓關係のさらなる悪化と經濟低迷」『アジア動向年報2020卷』 pp.25-54
- 川瀬剛志 (2021) 「日韓紛争にみるWTO体制と安全保障貿易管理制度の緊張關係」『公益財団法人日本國際問題研究所 研究レポート』
- シュルツ・フランツィスカ (2022) 「貿易紛争の經濟的なリスクと解決方法」『立教法學 106卷』 p.324-344
- 福岡正章(2021) 「日韓密貿易の展開」『同志社コリア研究叢書4卷』 pp252-273

## [기타자료]

- '일본 도대체 왜?' 지속되는 한일 경제 전쟁... 그 해법은?', "경향신문" 2019.08.09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1908090855018>> (접속일:2023.09.21)
- 「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시스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



[etail.do?idx\\_cd=2736](mailto:etail.do?idx_cd=2736)> (접속일: 2023.10.26)

- 「勝ち組の「ユニクロと無印良品」が露呈した弱点」『東洋経済新聞』2020.01.25 <<https://web.archive.org/web/20200412131825/https://toyokeizai.net/articles/-/326598?page=2>> (접속일: 2023.10.26)
- 「韓国政府 E A S 関連会議で日本輸出規制の不当性を説明」『聯合ニュース』2019.7.17 <<https://j.p.yna.co.kr/view/AJP20190717004100882>> (접속일:2023.09.24)
- 「韓国政府、武器貿易条約会議で日本の貿易制限措置の撤回要求」『中央日報』2019.08.28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57046>> (접속일: 2023.09.25)
- 「韓国が日本を提訴、輸出管理の厳格化で、WTO発表」『日本経済新聞』2019.9.16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9861600W9A910C1PE8000/>> (접속일: 2023.09.25)
- 「韓国による日本製空気圧伝送用バルブに対するダンピング防止措置 上級委員会報告書及びパネル報告書の採択」『外務省』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7871.html](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7871.html)> (접속일: 2023.09.25)
- 「韓国への輸出、半導体材料の一部許可 規制強化から初」『朝日新聞』2019.08.08 <<https://www.asahi.com/articles/ASM88319JM88ULFA003.html>> (접속일:2023.09.25)
- 「韓国、100品目で脱日本依存目標に 支援に6800億円」『日本経済新聞』2019.08.05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8208360V00C19A8FF8000/>> (접속일:2023.09.25)
- 「韓国向けフッ化水素輸出、1年で3283t→100kg 9月」『日本経済新聞』2019.10.30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1571220Q9A031C1EAF000/>> (접속일: 2023.10.24)
- 「韓国株・為替ともに急落 日韓経済戦争の「戦犯」文在寅に保守から「やめろ」コール」『デイリー新聞』2019.08.05 <<https://www.dailyshincho.jp/article/2019/08051703/>> (접속일:2023.09.28)
- 「韓国、100品目で脱日本依存目標に 支援に6800億円-優遇除外受け対策 半導体材料など年内に

- も」『日本経済新聞』2019.08.05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8208360V00C19A8FF8000/>> (접속일:2023.09.28)
- 「韓国、輸出優遇国から日本を除外 報復措置か」『朝日新聞』2019.09.18 <<https://www.asahi.com/articles/ASM9K56J6M9KUHBIO2W.html>> (접속일: 2023.09.28)
  - 「韓国向け輸出 2 割減、日本製品の不買影響か 貿易統計」『朝日新聞』2019.11.20 <<https://www.asahi.com/articles/ASMCN2RGXMCNULFA003.html>> (접속일: 2023.10.26)
  - 「韓国向けフッ化水素、輸出ゼロ 8月貿易統計」『日本経済新聞』2019.09.27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0278570X20C19A9EAF000/>> (접속일: 2023.10.24)
  - 「[速報] 韓国大統領府「G S O M I A 終了通告」効力停止 = W T O 提訴手続き中止」『聯合ニュース』2019.11.22 <<https://jp.yna.co.kr/view/AJP20191122004100882>> (접속일: 2023.09.25)
  - 「世耕経産相「韓国、友好関係否定の動き」 輸出規制巡り」『朝日新聞』2019.07.04 <<https://www.asahi.com/articles/ASM745GR3M74ULFA01W.html>> (접속일:2023.09.26)
  - 「対韓輸出規制でフッ化水素の輸出ができない森田化学が苦境、純利益が9割減」『マイナビニュース』2020.10.05 <<https://news.mynavi.jp/techplus/article/20201005-1374779/>> (접속일: 2023.09.28)
  - 「データでわかる訪日韓国人観光客」『訪日ラボ』<<https://honichi.com/visitors/asia/korea/data/>> (접속일: 2023.10.26)
  - 「日韓相互不信底なし 輸出優遇除外 日本「譲れば政権終わる」」『西日本新聞』2019.08.03 <<https://web.archive.org/web/20190809024027/https://this.kiji.is/530131125217297505/>> (접속일:2023.09.22)
  - 「日韓両外相共同記者発表」『外務省』2015.12.28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4\\_001664.html](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4_001664.html)> (접속일:2023.09.22)
  - 「日本政府「戦略的放置」貫き韓国をホワイト国から粛々と除外」『産経新聞』2019.08.02 <<https://www.sankei.com/article/20190802-IL7YEPAACZM6BIXN6T7OBUX6KQ/>> (접속

일: 2023.09.28)

- 「年次GDP成長率」『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https://www.esri.cao.go.jp/jp/sna/menu.htm>  
1〉 (접속일: 2023.10.26)
- 「不買運動で圧迫され経営難にあえぎ…日産「韓国から撤退」」『中央日報』2020.05.29 〈<https://jp.yna.co.kr/view/PYH20200529141800882>〉 (접속일: 2023.10.26)
- WTO (2020) 'JAPAN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PRODUCTS AND TECHNOLOGY TO KOREA' "DS590" pp1-5